"전주역사 전면 개선 힘 모아야"

시,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주요현안 해결 국비 지원 요청

전주시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驛舍)를 호남의 대표관문 답게 전면 개선하고 세계전통문화엑스포를 유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새누리당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 전북 7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누리당 전북도당-전북시장·군수 예산정책협의회 1차 회의'에서 전주역사의 전면개선과 2022년 세계전통문화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시장이 지난 26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재차 협조를 요청한 것은, 전주가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다.

먼저, 김 시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과 전주의 첫 인상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주역사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 1981년 현 위치에 신축된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014년 233만명에서 지난해 255만명으로 22만명이나 급증했지만,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각종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전면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역은 전주시가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과 세계적인 배낭여행 지침서인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1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대 명소'에서 3위로 선정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자원을 지닌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한옥·한지·한식 등 전통문화가 현대적 생활양식과 잘 어우러진 대한민국 전통문화 중심도시인 전주에서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2022년 전주 세계전통문화엑스포'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엑스포는 예술과 과학, 산업 등 각 분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산업진흥과 경기부흥 정책에 이용되는 대규모 행사로,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로 구분된다. 시는 오는 2022년 세계전통문화엑스포가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와 같이 인정엑스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시장은 이날 정운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과 사전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당론채택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재차 건의했다. 또, 청년비즈니스 드림센터 구축,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등 국가예산 사업 12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전주역은 전국에 있는 KTX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됐지만, 론리플래닛과 CNN 등에 전주가 꼭 가봐야 할 아시아 명소로 소개가 되고, 내년에는 FIFA U-20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면서 전주역을 찾는 분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역은 호남의 관문인 동시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주요시설인 만큼 문화재급 한옥으로 전면 신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28일 전주시청에서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7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전북 기초단체장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 승암마을, 살기좋은 마을로 가꾼다

주민참여형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인 교동 승암마을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와 마스터플랜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 성공적인 도시재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주민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주민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후 진행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시는 승암마을 주민교육을 오는 8월까지 총 6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주민간담회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7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마을문제 및 갈등에 대한 의견조정, 향후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 등을 해나가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할머니 공방' 프로그램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은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과 연계해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손영칠 시 도시재생과장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모델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복지도시' 구축 순항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 목표달성도 74%
예산집행율 51%로 시 복지행정 가속화

전주시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를 탄탄하고 세심하게 보장받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근거로 수립됐으며,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하고 사업집행의 책임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간보고회 결과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달성도는 74% 이상, 예산집행율도 51%로 나타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로당활성화사업과 노노프로젝트, 어린이집 지원, 일시보육시설운영, 위기청소년발굴지원사업, 사회복지사 보수현실화, 동아리지원 등 20개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목표를 초과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일부 미진사업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함께하는 복지도시'를 목표로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적극적 복지시스템 구축 등 3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중점추진사업, 62개 세부추진사업으로 구성했다.

중점추진사업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행복플러스 여성복지 △어우러 사는 복지공동체 △전주시 안전도시 만들기 △따뜻한 가족공동체 만들기 △선택과 집중의 복지시스템 △사회복지사 처우 현실화 △민관파트너쉽 참여복지를 표방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올 들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주시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대에 미진한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드림스타트, 청소년 인성 문화캠프 운영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인성 문화캠프를 운영한다.

전주시드림스타트는 28일과 29일 이틀간 보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문화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캠프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올바른 인성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숨겨진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참여아동들은 마음열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상황극 표현과 타인과의 대화 기법 등 인성문화 활동과 더불어, 천체투영, 천체관측의 과학 활동, 자신감과 인내심을 배양하기 위한 공동체놀이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캠프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존감과 협동심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해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인 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캠프가 여름방학에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남의 택배 훔친 20대 女 '덜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남의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귀금속이 담긴 남의 택배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22·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4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세트가 담긴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이웃 할머니 성폭행
지적장애인 징역7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8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지적장애 2급)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간 공개와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도내 한 농촌마을에서 A(70대·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할머니를 성폭행한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집 전화선을 뜯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